

신라표원스님 '화엄경문의요결문답' 日서 필사본 발견

황규찬씨 자료 공개... 화엄학 日영향 입증



현재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지 않은 신라시대 고승 표원(表圓)스님이 찬술한 <화엄경문의요결문답(華嚴經文義要決問答)>(이하 <문답>)의 가장 원본에 가까운 필사본이 발견됐다. 또 지금까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던 <화엄요의문답>과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같은 것이며, 표원스님(생몰연대 미상)과 표훈스님(의상스님 제자·생몰연대 미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서로 다른 인물임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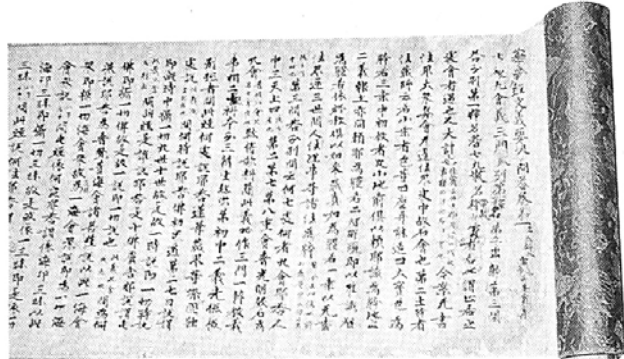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최근 '신라 표원의 화엄요의문답 연구'로 동국대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황규찬씨가 지난해 일본 히에산 연력사(延曆寺)에서 입수한 <문답>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현재까지 <문답>의 필사본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에 현존하는 동대사, 경도대학, 용곡대학뿐인 전부. 이번에 발견된 연력사본은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일본에서조차도 전혀 연구되지 않은 것이며, 필사본 말미에 '연력(延曆)18년(797년) 행복(行福)이라는 자가 썼다'고 기록돼 있어 최소한 1천2백년전의 것으로 평가된다. 또 <문답>은 현재 전하는 이들 3종의

현존본이 상당히 많은 이차(異字), 탈자(脫字), 오자(誤字)가 있는데 비해 거의 완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5권중 1권에 해당하며 상·하 2권으로 돼 있는 두 루마리 형태의 <문답>은 외제(外題)가 '화엄요의문답'으로 돼 있으나 내제(內題)는 '화엄경문의요결문답'으로 돼 있어 '화엄요의문답'과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이 같은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797년 제작... '화엄요의 문답' 같은책 '표훈스님과 동일 인물 아니다' 주장

또 <문답>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표원스님은 제1권에서 '칠처구회(七處九會)'를 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80화엄을 연구했으며, 80화엄의 번역이 완성된 해가 699년이고 <문답>의 필사연대가 797년임을 감안할 때 표원스님은 대략 8세기 중엽에 활동했으며, 연력사 <문답>도 이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다고 황씨는 설명했다. 더욱이 <문답>은 거의 80%이상을 중국 승려의 설을 인용하고 있으며, 의상의 설은 단 3회 인용에 불과하고, 그중

1회는 의상의 오류를 지적·비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의상의 제자인 표훈(表訓)과 표원은 서로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표원과 표훈의 동일인물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력사 국보관에서 직접 이 자료를 조사하고 돌아온 김지경박사(정신문화연구원)도 "<문답>은 80화엄을 정리한 것중 가장 방대하고 내용 또한 충실하다"며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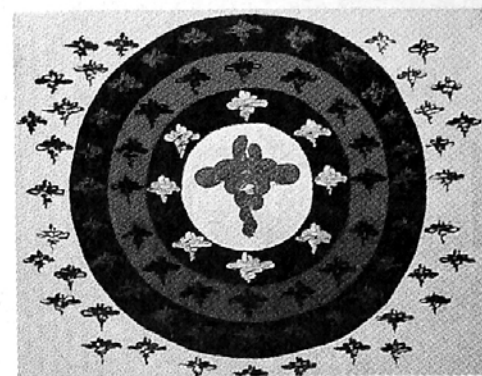


◇일본 연력사서 발견된 '화엄경문의요결문답' 필사본.

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목장대학교(동국대 불교학)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표원스님의 행적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큰 수확"이라며 "표원의 화엄학이 일찍이 일본에 영향을 끼쳤던 사실을 말해주는 획기적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황규찬씨는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역된 '화엄경문의요결문답'은 경도대학원을 수록한 속장경을 저본으로 한 것이어서 이번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연력사 <문답> 발견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영우 기자



◇정경사

法數로 배우는 불교

일단 일체단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은 씨줄과 날줄, 즉 세로줄과 가로줄로 짜여져 수많은 코를 이루고 있다. 만약 알기설기 이루어진 이러한 그물에 하나의 코라도 끊어진다면 그 그물은 곧 못쓰게 되고 말 것이다. 끊어진 하나의 코는 다른 코들을 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 급기야는 그물 전체를 망가뜨려 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 비단 그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한 가정에도 한 집안에도 한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

다, 과거다 미래다, 잘났다 못났다 하는 것들이 모두 흩어져 일체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일단일체단이라는 말씀 가운데 일단(一斷)이란 바로 생각생각마다에 달라붙어 있는 '나'를 끊는다는 말이며, 일체단(一切斷)이란 '나'라는 의식에서 파생된 온갖 집착들을 끊는다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라는 번뇌가 곧 일체 번뇌인 셈이 되고 일체번뇌가 곧 '나'라는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를 끊는다는 것은 곧 '나라는 마음'을 끊는다는 것이 된다. '나라는 마음'을 끊으려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 모든 분별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이것이 곧 참선인 것이다. 즉 마

'아상' 버리면 온갖번뇌 사라져

마음 살피는 공부 인연속박 벗는 지름길

해 전체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다. 이처럼 그물과 같이 하나가 끊어지면 전체가 끊어진다는 도리를 불교에서는 일단 일체단(一斷一切斷)이라고 한다. 즉 일단일체단의 뜻은 '한 번뇌를 끊으면 온갖 번뇌가 끊어진단다'라고 이해해야 옳은 것이 된다.

알다시피 불교는 번뇌를 끊어 해탈을 이루는 종교다. 번뇌란 중생을 마음속에서 일고 끼치는 모든 생각들을 가리킨다. 보이고 들리는 대상세계는 물론 부모형제, 남편, 처자의 일체 인연사가 번뇌가 되어 마음이 장악되고 희·비·애·락의 굴레속에 빠져 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보면 번뇌를 끊는 일은 불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라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의 번뇌를 끊어 일체의 번뇌까지 끊는 것인가? 먼저 여기서 말하려는 하나의 번뇌란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 가운데 붙어있는 '나'라는 자의의식(自我意識)을 말한다.

그리고 일체번뇌란 이러한 '나'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갖가지 그릇된 집착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두목적인 '나'라는 의식만 제거해 버리면 나머지 한량 없는 번뇌는 스스로 사라지게 된다. 바로 '나'가 마음속에서 비었다는 이치를 확실히 알 것 같으면 처자권속은 물론 산다 죽

음에서 화가날 때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공부, 마음에서 욕심이 일 때는 '내가 욕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공부,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날 때는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채는 공부부터 기초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쌓아두면 나중에는 미세하게 움직이는 자신의 생각들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종국에 가서 '나'가 끊어지는 체험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는 마치 그들의 코가 '투박'하고 끊어지는 현상과도 같다 하겠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일체 번뇌를 또한 바람앞에 구름길 하듯 하게되면서 온갖 인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자재의 참마음, 부처의 세계가 드러난다.

불자는 마음 살림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으려는 행을 짓는 사람이다. 마음이 대상을 좇으면 범중생의 길에 드는 것이고, 마음이 내면을 향해 집중되어 있으면 성현의 길에 드는 것이라 했다. 하나의 번뇌를 끊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활과 마음이 함께 돌아가는 것이라면 살피는 공부도 함께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유일한 고려예불도... "무늬섬세"

구도·장식 14세기 작품유사... 과학적 보존 절실

봉정사 후불벽화 특징

이번에 발견된 봉정사 극락전 후불벽화를 고려 불화로 보는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다. 문명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에 의하면 구도상 나타난 특징으로는 화면 상단 중앙에 석가상존상을 배치하고 그 주위로 제석과 범천, 아난과 가섭 등 10대 제자, 보살들이 주위와 상존 아래쪽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도는 14세기 전반기의 관경변상도와 미륵상경변상도의 본존불과 협시들의 배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1350년 미륵상경변상도를 상한(上頭)으로, 1465년 조선초기 관경변상도의 구도와 비교되므로 14세기 후반기에서 늦으면 1450년 이전에 제작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불상군의 형태를 볼 때 머리의 앞은 육계와 중앙계주, 등근 얼굴과 단아한 형태가 14세기 불상들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또 등근광배의 붉은 선과 녹색선 안의 녹색과 흰색, 붉은 가사와 녹색 상의에 그려진 섬세한 꽃무늬색들은 물론 얼굴과 살색을 금니로 칠한 것이 1350년 미륵상도를 상한으로 1465년 관경변상도를 하한으로 하는 고려불화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벽화 불상에 그려진 원폭자 상의(上衣)의 금구장식(金具裝飾), 왼쪽 팔꿈치의 H형주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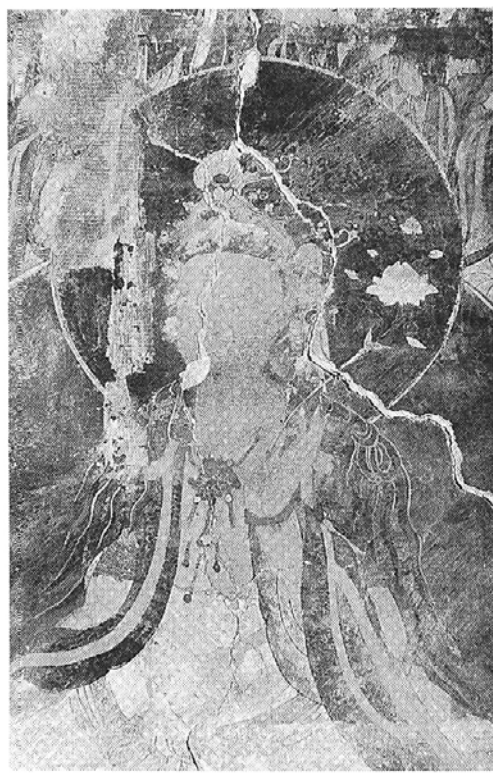
대외에 세필로 그려진 세련되고 유려한 등근 꽃무늬와 옷깃 원바탕색에 그려진 보살상초무늬 등이 1300년 아미타상존도 등 14세기 전반기 불화들과 흡사하다는 분석이다. 8각대좌의 형태나 무늬들도 1465년 관경변상도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으로 문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고려 벽화로는 경북 영풍군 부석면에 소재한 1377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부석사조사당벽화(국보 제46호)와 모사도(模寫圖)의 일부만이 전하는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벽화 두 점뿐.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벽화는 예불도(영산회상도)라는 점에서 위 두 점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국내 유일의 예불도인 조선전기 최고(最古)의 벽화로 꼽히는 1476년작(作) 전남 강진 무위사 아미타후불벽화보다도 시기적으로 앞선 뿐 아니라 한층 나은 고색을 자랑하고 있어 국보로 지정, 과학적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고려불화는 아미타상존도(국보 제218호) 등 호암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3점과 호림미술관 소장 지장시왕도(보물 제1048호), 지난해 발굴된 수월관음도 등 모두 7점이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은 이번에 발견된 고려벽화에 대한 조사 및 보존처리를 위해 조만간 현지에서 내려가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우)



◇새로 발견된 봉정사 후불벽화의 문수보살상. 문수·보현보살과 시왕열, 10대제자들이 석가여래부처님을 중심으로 배치된 것은 전형적인 영산회상도 구도이다.

불교전문 지도자(유발승려)교육생모집

1. 설립이념

본교육원에서는 현실에 맞는 실천불교, 체험불교, 생활불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선양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지도자(유발승려)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불교에 대한 헌력을 가지고 전문 종교인으로서 가치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교육기간 : 1년

교육과정 (※ 자세한 교육과정 내용은 설명회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불교학	종교학	포교학	불교의식(집전)	복지학	상담심리학	명리학
-----	-----	-----	----------	-----	-------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지도자과정 30명	불자	입학원서 1통	원서교부 : 97년1월10일 ~ 2월 28일	면접 및 서류전형
일반과정 30명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상의 남·녀	본원 소정 양식 1통	접수 : 3월1일 ~ 3월 30일(전일) 13000원	공·시 기입제 면접회차적 우선전형

4. 특전

- ▶ 본원 졸업(전문지도자 과정)수계 후 유발승려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본원이 소유한 사찰 및 포교원 원장에 발령 임명함.
- ▶ 본원졸업(일반과정)수계후 법사자격 부여 본원 포교사 임명
- ▶ 성적우수자에 한하여 본원과 자매 결연한 해외 종교 기관에 특별 연수

※ 교육과정 설명회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 본원
대표전화 : (02) 423-1800

우리 불교 마음의 절

부설 : 불교전문 지도자 교육원
불자가정 부처님 모시기 운동본부

장엄불사 조감도

스님의 생각을 현실로 표현해 드립니다.

(주)두풍산업에서는 확실한 조감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엄불사안내 : ●목조 사찰건축, 콘크리트법당 및 요사채 ●대불, 옥불, 조각, 단집, 탁자, 문짝

기능직 중견 사원모집

자격 : 10년이상 사찰 및 고건축 분야에서 종사하신, 정직하고 성실한분들
(주)두풍 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책임은 확실히 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株式会社 二豊産業 대표 02) 432-7777
전화 02) 439-3900
서울 중랑구 망우동 486-8 (두풍 B/D)